

“의로운 광주시민 찾습니다”

광주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기여한 시민 발굴·시상

시민이 직접 추천 시민권익위 심의·의결

광주시는 “의로운 시민이 존중받고, 생활 속에서 나눔·연대 등 광주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발굴·시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로운 시민상’은 광주시가 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정의를 옹호하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의로운 시민 추천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대상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 시민 ▲불법·불합·부도덕 근절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시민 ▲평소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거나 경호호전 정신이 투철해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청송을 받은 시민 등이다.

의로운 시민 추천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광주’에 마련된 의로운 시민 코너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

다.

광주시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추천된 시민이 ‘바로소통광주’ 온라인상에서 5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얻으면 시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적심의 등을 거쳐 시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단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더라도 최근 2년 이내 시장표창 수상자와 의로운 시민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될 만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나눔과 연대의 의로운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시민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로운 시민 발굴이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일부 의료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위안부 비하광고에 대응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배포, 유니클로 광고 중지 등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윤동현 시민에게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공유주차장 지원

광산구, 주차공간 개방 시설에 최대 1억원 시설개선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캠페인 활동도

광주시 광산구가 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난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광산구 주차면수는 27만7609개이며, 등록된 자동차는 20만335대다. 주차장 확보율은 138.6%에 이르지만, 불법주차 민원과 단속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 주차 시비에 따른 이웃 간 갈등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주차난 해소 3대 핵심과제로 ‘주차환경 개선’, ‘공유주차장 지원’, ‘시민의식 개선’을 선정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

다.

광산구는 우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광산구의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주차난 심각 지역 3곳을 주차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해당 시범사업 대상지 내 불법주정차와 주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일방통행과 주차휩쓸제 같은 장소 맞춤형 주차정책 발굴 영역을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8개 항목 5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은 도심 주차환경 실태, 주차장 공유 필요성,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정책 제안 등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광산구는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갖고 용역 결과 분석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부터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주차공간을 다른 시민과 나누는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기존 주차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단순한 공간 나눔을 넘어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 5면, 1일 7시간과 1주 35시간, 2년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시설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 제작, 도색, 아스콘 포장,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구는 또 시민의식 개선 사업으로 횡단 보도와 소화전 주변 등 4대 지역 불법주정

차 근절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산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안전지킴이사업도 추진한다.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단체 회원 등과 스피드 규정 속도 준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야간 밤샘주차 근절 등 각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 여기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게 광산구의 의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광산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과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13개 단체 총 1억5천만원 지원

광주시는 “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시민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단체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17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3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실로암사람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사)광주시민방송, 사단법인고려인마을,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연구소 두박이, (사)광주평화포럼,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올해는 기획공모와 일반공모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 기획분야는 장애인, 여성,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 증진 사업을 5개 단체가, 일반분야는 인권교육, 인권준중문화 확산, 인권보호 사업을 8개 단체가 추진한다.

시는 선정사업에 따라 각각 400만원부터 19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장덕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렌탈 북’ 서비스.

(광산구 제공)

“드라이브 스루로 광산구립도서관 책 빌리세요”

코로나19 휴관 도서관들 책 소득기로 살균해 전달

휴관 중인 광산구립도서관 장덕·이야기꽃·첨단·신가·운남어린이 도서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를 타고 책을 빌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렌탈 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빌릴 책을 신청하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면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는 운영된다.

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도로 이용자도 대출증을 지참하면 각 도서관 지정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인 5권까지 3주간 책을 빌려준다.

위생을 위해 모든 대여도서는 책 소득기로 살균한 다음, 포장해서 전달된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기

존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책 빌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자료실(장덕: 960-3996, 이야기꽃: 6818, 첨단: 8298, 신가: 8515, 운남어린이: 6445)에서 한다.

차량 이동형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도, 본인에게만 발급하던 민원서류를 위임서류 구비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마스크 170매 기부

광산구 월곡지구대 방문 ... 손편지와 함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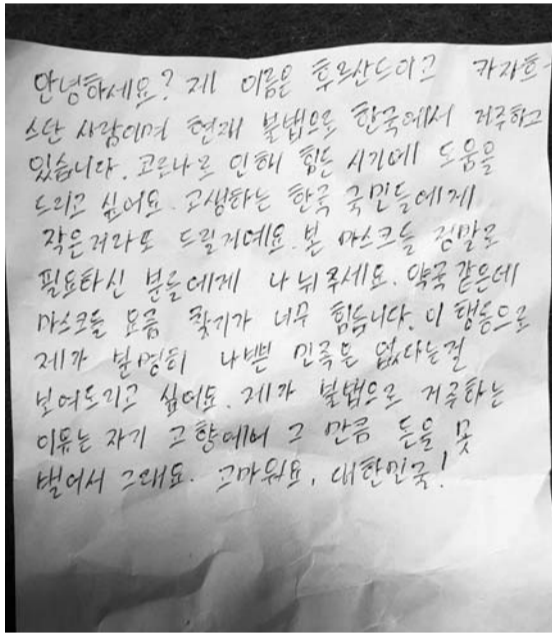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170매를 기부,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 외국인 남성이 방문하여 기부하게 된 사연을 꼼꼼히 적은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170매를 기부했다.

손편지에는 자신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상태이지만 항상 한국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며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눠달라고 적혀있었다.

월곡지구대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월곡2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 기부자의 뜻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윤희 월곡2동장은 “봄 개나리 꽃말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보낸 손편지.

이 희망이듯,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 되어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